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표지 탐색하기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책에서 나올 이야기를 예상해 봅시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는 입양 동화

“그럼, 난 낳아 준 엄마한테 돌아가야 하는 거야?”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우주는 이렇게 물었어.
“우주야, 엄마랑 아빠를 봐. 원래 따로따로 살았잖아.”
그런데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 가족이 됐잖아.
너도 그렇게 우리 집의 가족이 된 거야.”
너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란다.

①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아는 대로 써 보고, 사전에서 정확한 뜻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

② '엄마'가 '우주'에게 입양 이야기를 하자 '우주'는 어떻게 물어 보았나요?

⇒

③ '엄마'는 '우주'와 가족이 된 과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너에 대한 엄마의 사랑도 처음엔 이렇게 뒤틀려 있었다.
 · 옴팡지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외할머니는 칭찬을 했어.
 · 예상은 했지만 너의 행동이 너무도 재빠르고 완강해 한동안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지.
 · 우원이 동생이 필요하면 하나 더 낳을 일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그것도 여자애를 입양한다는 게 당신 생각으로는 마뜩잖았던 거야.
 · 그 일이 있고 난 뒤 년 많이 살가워졌어.

- (나) · “어차피 한 번 겪어야 할 ㉠□□□□예요. 고통스럽지만 그걸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입양아는 없어요.”
 · ㉡□□□□이 있었지만 반편견 입양 교육은 그런대로 끝났어.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뒤틀리다 : () · 옴팡지다 : () · 완강하다 : ()
 · 마뜩잖다 : () · 살갑다 : ()

- ① 꼬인 것처럼 몹시 비틀리다. ② 마음에 들 만하지 아니하다.
 ③ 마음씨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④ 태도가 모질고 의지가 굳세다.
 ⑤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

2) (나)의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 출생, 성년, 결혼, 사망 따위와 같이 사람의 일생 동안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의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 뒤엎혀 복잡하여진 사정.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로 태어나서 눈에 이상이 있어요. 나중에 수술을 해야 해요.”
 ② 1층에서 반 층 정도 깊이인 지하층은 아파트 주민들의 () 물건이나 청소 아줌마의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지.
 ③ 이렇게 잠든 모습이 순하고 귀여운 너를 두고 쓸데없는 ()을 폼다니.
 ④ “악화되면 ()에 걸리거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잘 치료하면 그걸 막을 수도 있지요.”
 ⑤ 첫 시간엔 입양과 입양에 관한 ()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그 이후 토론이 이어졌지.

(나) “㉠감정이 아니면 그럼 ㉡논리로 접근하자는 거야?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논리적으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그게 쇼핑이지 입양이야?”

1) 다음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미숙아 : 임신한 지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 특례법 :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
- 허드레 :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허름하여 함부로 쓸 수 있는 물건.
- 선입견 :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진 고정 관념이나 관점.
- 녹내장 : 안압이 높아져서 시각 신경 유두의 병적 변화와 시야의 결손을 가져오는 일련의 병.

2) (나)의 밑줄 친 낱말 ㉠‘감정’, ㉡‘논리’의 사전적인 뜻을 아래에서 각각 골라 기호를 쓰세요.

• ㉠의 뜻 : (), • ㉡의 뜻 : ()

- ㉠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 ㉡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등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 및 원리.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너는 이렇게 엄마에게 왔지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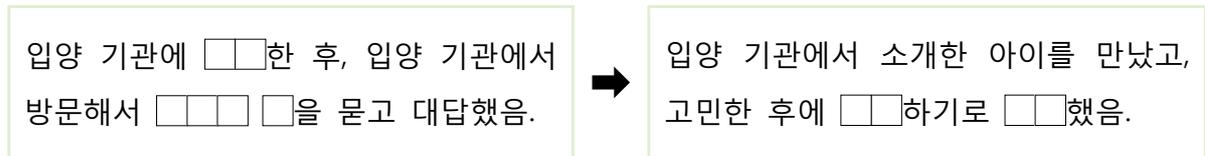
(가)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어. 곧바로 입양 기관에 문의를 했지. 얼마 후 입양 기관에서 우리 집을 방문했어. 이것저것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했지. 이야기가 거의 끝나 갈 즈음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

“저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애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엄마의 말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 엄마의 다리가 불편해 입양을 망설였는데, 장애가 있는 여자애라니. 아빠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 하지만 내놓고 반대하진 않았어.

(나) 결국 우리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원래 입양에 대한 공부도 하고 다른 입양 가족의 경험도 충분히 들은 다음 가을쯤 입양하려 했는데, 그만 만난 지 이 주 만에 데려오기로 결정했어. 우주야,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이 대목을 이야기 하는데 엄마 목이 메는구나. 지나간 일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주 네가 얼마나 서운할까, 생각하니 엄마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어떡하겠니? 사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 없었어. 너에 대한 엄마의 사랑도 처음엔 이렇게 뒤틀려 있었단다.

1) (가)~(나)에 나타난 우주의 입양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2) (가)에서 ‘아빠’가 ‘엄마’의 말에 깜짝 놀라며 부담스러워한 이유와 (나)에서 ‘엄마’가 이야기하다가 목이 메고 가슴이 너무 아픈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가)	
(나)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잃어버린 시간들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는 나무토막처럼 누워 있는 네 모습 앞에서 아득해졌어. 네가 엄마를 만나기 전 살았던 시간들을 모른다는 것이 엄마에겐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었어.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걸 타고 가 네 아기 적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싶었지. 도대체 이렇게 깨워도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속이 터질 수밖에.

우원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궁금할 일, 어려울 일이 없었어. 떼를 쓰면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됐지. 오 분만 지나면 제 풀에 지쳐 떼를 멈출 테니까. 아침에 깨울 땐 몇 번 말을 하고 난 다음 가만히 두면 됐지. 늦을까 봐 걱정이 돼 시계를 보면서 식탁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

(나) 울음. 그리고 보니 네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아까 너를 떼 놓고 가려 할 때도 너는 울지 않았지. 아침에 엉덩이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울지 않았지. 아이들과 다투면서 여러 대를 맞았는데도 넌 울지 않았지. 그동안 네가 울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발견했어.

1) (가)에 나타난 ‘엄마’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p>· ‘우주’에 대한 생각 : 엄마를 만나기 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을 모른다는 것이 매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이었음. ↳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input type="text"/> 를 알 수 없으니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음.</p>	<p>· ‘우원이’에 대한 생각 : <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 때부 터 <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 알고 있으니까 궁금할 일, 어려울 일이 없었음. ↳ 아침에 깨울 때는 몇 번 <input type="text"/> 을 하고 난 다음 가만히 두면 됐 음.</p>
--	--

2) (나)에서 ‘엄마’가 ‘우주’에 대해 깨닫고 발견한 것은 어떤 점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재, 내보내면 안 돼요?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유치원이랑 피아노 학원에 가면 내 얘기만 한데. 당신이 그렇게 잘해 주는데도 우주는 아빠 없는 애처럼 엄마 얘기만 한데. 그런 소릴 들으면 우주가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느껴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입양을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나, 환멸감도 들고. 마음은 꼭 닫은 채 의무감만으로…… 이런 내가 싫으니까 애꿎게 자꾸 우주를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나) 우원이는 더 서럽게 울부짖으며 외쳤지. 눈물이 넘치는 눈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 차 있었지. / “엄마……, 재 내보내면 안 돼요?”

그 소리에 엄마는 하늘이 노래졌지. 너의 얼굴도, 우원이의 얼굴도 볼 수 없었어. 땅속으로 그만 꺼져 버리고 싶었어.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런 순간일 거야. 엄마는 스스로도 싫고 너와 우원이도 싫고 모든 게 싫어졌어.

다행히 넌 우원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 그냥 오빠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받아들였지.

1) (가)에서 ‘엄마’가 ‘우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발단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우원이’는 ‘엄마’에게 ‘우주’를 내보내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우원이’의 이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엄마, 나 엄마가 둘이래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는 그 애길 들으면서 더 큰 고민에 빠졌어. 폭풍우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 네가 안정을 보이는데, 갑자기 입양 사실을 알리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꼭 입양 이야길 해야 하나요? 이제 우주와 애착도 생기고, 우주 마음도 차분해진 거 같은데, 괜히 입양 이야길 꺼내서 아이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진규 엄마는 물려서지 않았어. “어차피 한 번 겪어야 할 통과의례예요. 고통스럽지만 그걸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입양아는 없어요. 이왕 겪을 거라면 그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알려줘야 해요.”

(나) 입양 캠프 마지막 날 점심. 너와 만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엄마 가슴은 다시 또 조마조마해졌어. 네가 저만치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오면 뭐라고 달래야 할까,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고 있었지.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 너는 백 미터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젖 먹던 힘을 다해 엄마에게 달려왔지. 네가 가까이 다가오자 네 표정이 보였어. 너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지. “엄마, 나 입양됐대! 엄마, 나 엄마가 둘이래!”

1) (가)에서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드러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엄마 : 괜히 □□ 이야기를 꺼내 우주 를 또다시 □□에 빠뜨릴 수도 있어서 꼭 □□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음.	진규 엄마 : 어차피 한 번 겪어야 할 □□□□이고, □□을 □□ 없이 받아 들일 수 있을 때 알려줘야 함.
---	---

2) (나)를 읽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할 때,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엄마 : 우주가 막 □□을 흘리면서 달려오 면 뭐라고 달래야 할지 □□를 하면서 □ □□ □□를 잡지 못하고 있었음.	우주 : □ □□ □을 다해 엄마에게 달려 와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 나 □□됐대! 엄마, 나 엄마가 □□이래!”라고 말했음.
--	--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넌 쓰레기통에서 주워 왔어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야, 넌 네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 왔다면?” / “누가 그래?”

“너 어느 고아원에서 살았니?” / 태훈이는 이렇게 너를 놀려 댔지.

“아니야. 난 고아원에 살지도 않았고 쓰레기통에서 주워 온 것도 아니야.”

“네 엄마가 널 낳지도 않았잖아?” /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원해서 입양을 한 거라고.” / “아무튼 넌 입양아잖아.” /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를 가슴으로 낳은 게 입양이라고 그랬어.”

(나) 그리고 이어진 선생님의 다음 말에 그만 마음이 다치고 말았어.

“전 우주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입양아였네요. 제가 이런 애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잘 단속하지 않으면 사춘기 지나자마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자애들 사귀고 그래요. 지금부터 단단히 잡아야 해요.” / 선생님 앞에서 그 얘길 듣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끔찍하던지 그냥 자리를 뜨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입양아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을 순 있겠죠. 그렇다고 모든 입양아가 그런 건 아니죠. 친부모랑 사는 아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 (가)에서 ‘우주’를 놀려 대고 있는 ‘태훈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선생님’이 입양아인 ‘우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말한 내용을 찾아 쓰세요.

⇨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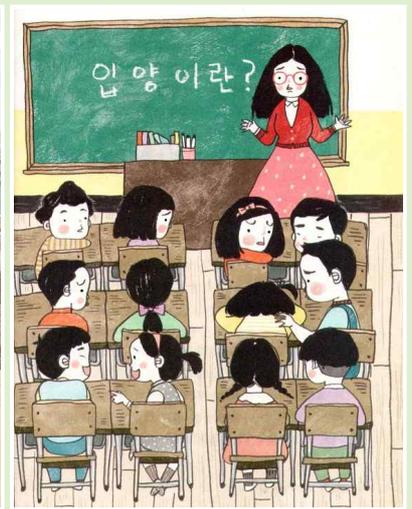
1) 다음은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의 본문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각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써 보세요.



①



②



③

2)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고, 그것과 연관지어 입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백승권 글 / 이영림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예시답안) 엄마가 어떻게 자신의 엄마가 되었는지 궁금할 때에 묻는 말이다. 2) (예시답안) 앉아 있는 엄마의 가슴에 있는 하트와 커다란 하얀색 하트 위에 앉아 빨간색 빨데 안경을 쓴 단발머리 여자아이의 가슴에 있는 하트가 빨간색 실로 이어져 있다. 3) ① 아는 대로 쓰기 : (예시답안)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려다 자식으로 삼고 기르는 것. / 사전적인 뜻 : 양자로 들어감. 또는 양자를 들임. ②그림, 난 낳아 준 엄마한테 돌아가야 하는 거야? ③ 따로따로 살다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니깐 가족이 된 것이다.
2쪽	1) 뒤틀리다 : ①, 옴팡지다 : ⑤, 완강하다 : ④, 마뜩잖다 : ②, 살갑다 : ③ 2) ㉠ : 통과외례, ㉡ : 우여곡절
3쪽	1) ① 미숙아, ② 허드레, ③ 선입견, ④ 녹내장, ⑤ 특례법 2) ㉠ : ㉡, ㉢ : ㉣
4쪽	1) 문의, 궁금한 점 / 입양, 결정 2) (가) : 엄마의 다리가 불편해 입양을 망설였는데, 엄마가 장애가 있는 여자애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해서 / (나) : 우주에 대한 엄마의 사랑도 처음에는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 것이 떠올라서
5쪽	1) 우주 : 살았던 시간들, 난처한, 이유 / 우원이 : 갓난아기, 속속들이, 말 2) 우주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동안 우주가 울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음.
6쪽	1) 우주가 아빠 없는 애처럼 엄마 얘기만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주가 엄마를 얼마나 원하는지 느껴져서 2) (예시답안) 우원이가 우주와 다투다가 우주를 집에서 내보내면 안 되냐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입양해서 동생이 된 우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에서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7쪽	1) 엄마 : 입양, 혼란, 입양 / 진규 엄마 : 통과외례, 입양, 편견 2) 엄마 : 눈물, 궁리, 생각의 갈피 / 우주 : 젓 먹던 힘, 입양, 둘
8쪽	1) (예시답안) 태훈이가 우주에게 네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 왔냐고, 어느 고아원에서 살았냐고 말하며 놀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태훈이가 우주가 입양아인 것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 태훈이에게 입양이 무엇인지 잘 알려줘야 한다. 2) 입양아는 잘 단속하지 않으면 사춘기 지나자마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자애들 사귀고 그러니 지금부터 단단히 잡아야 한다.
9쪽	1) ① 우주가 엄마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옴팡지게 밥을 먹는 장면 ② 우주가 오빠 우원의 왼손을 깨물어 버려서 아빠가 타이르는 장면 ③ 입양 단체 강사 선생님이 입양 교육을 하다가 우주가 입양아라고 밝히자 울음을 터뜨린 장면 2) 생략.